

김종호 “大·中企 윈윈할 수 있는 기술거래문화 조성할 것”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취임 2주년 맞아 기자 간담회
기술중개시스템 ‘2Win-Bridge’
현대중, 한전 등 8곳과 협약 맺어
기술거래 인프라 개방 등 지속 추진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기보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은 “기보가 보유한 다양한 기술보호 프로그램으로 중소기업 우수기술에 대한 불공정 거래, 기술탈취 근절에 앞장서고 동반성장모델인 ‘2Win-Bridge’를 통해 대·중소기업이 모두 윈윈(win win)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종호 이사장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리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기술금융 종합지원기관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새정부 국정과제를 적극 수행해 완결형 벤처생태계를 구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1년 11월 8일 취임한 김 이사장은 임기 3년째에 접어들고 있다.

김 이사장은 취임 후 현재까지 전국 산업 현장을 20회 이상 방문하며 정책 지원, 자금 유동성 문제, 규제 개선 등 기업들 애로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

기보는 현재 중소기업을 위해 ▲영업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임치 ▲사업 제안, 입찰, 공모 등의 증거를 지키는 TRS(Technology data Transaction record Registration System) ▲우수 특허기술을 보호하는 기술신탁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연구개발(R&D)·거래 과정에서 생기는 기술 등을 보호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기보가 구축한 중개시스템인 ‘2Win-Bridge’를 통해 대기업은 신사업 추진시 필요한 기술이나 공동협력 중소기업을 손쉽게 탐색할 수 있고 기술탈취 오명 없이 기보의 중개하에 투명하게 기술이전이나 인수합병

(M&A)을 진행할 수 있다”면서 “중소기업은 기술탈취 없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기술을 거래하거나 M&A를 협상할 수 있고 대기업과 기술이전, 공동R&D 등 거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보는 지난 10월까지 ‘2Win-Bridge’를 통한 동반성장을 위해 HD현대중공업, SKC, LX인터내셔널, KT, 한국전력공사, 두산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기보는 내년에도 미래신산업 분야에 대한 정책지원을 지속하고 중소기업 부실평가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위험관

리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 이사장은 “민간기술거래기관 등 외부기관과 고객이 수요에 따라 기술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거래 인프라를 개방하고, 수익창출 기회를 제공해 민간 중심의 기술거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기보는 올해 1월 데이터혁신센터를 신설했고, 3월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데이터가치평가기관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중소기업의 탄소중립을 위해 녹색금융 활성화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기보는 지난 2020년 개발한 탄소 가치 평가 모델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량을 화폐 가치로 환산한 탄소 가치를 산출, 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기보 관계자는 “일반적인 보증 한도보다 탄소 가치로 산출한 금액만큼 가산해 보증을 지원하고 있다”며 “정부 예산을 통해 지속적으로 탄소 가치평가 기반 보증을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보는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상황·정부정책 등을 반영해 올해 보증공급 규모를 전년 대비 2조2000억원 늘린 6조4000억원으로 늘렸다. 보증기한 최대 3

년간 만기연장, 보증료 0.2%p 추가 감면 등도 시행했다. 또한 기업이 회사채와 같은 직접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유동화회사보증을 올해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2047억원을 새로 공급했다.

중기부와 협의해 혁신 벤처·스타트업 및 수출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례보증을 새롭게 신설, 5500억원을 추가 공급하기도 했다.

아울러 첨단제조·에너지·디지털통신·자동화·바이오 등 초격차 미래전략 산업에 대한 우대보증을 마련해 올해 지원규모를 2조4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예비유니콘 특별보증도 확대·개편해 글로벌 유니콘기업으로 성장 가능한 유망기업을 적극 발굴·지원했다. 그 결과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선정기업 중 7곳이 유니콘 기업이 됐고 기업공개(IPO) 9개사, M&A 4개사 등의 성과도 거뒀다.

김 이사장은 “기보는 유가 고공행진과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환경 속에서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이 성장동력을 잃지 않도록 중소벤처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충실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중견기업 혁신펀드 1차분 1000억 결성

미래차·바이오헬스 집중 투자
2027년까지 총 1조 규모 조성

총 1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중견기업 혁신펀드 1차분 1000억원이 올해부터 미래차와 바이오헬스 등 중견기업 수요가 큰 핵심산업 분야에 집중 투자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상장회사회관에서 ‘제1차 중견기업 혁신펀드 결성식’ 및 ‘중견기업 금융·투자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중견련 상근부회장, 와이지-원 등 출자 중견기업, 대상창업투자 등과 중견기업 재무·회계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이번에 결성된 중견기업 혁신펀드는 산업기술혁신펀드 400억원, 중견기업계 100억원, 민간매칭 500억원 총 1000억원 규모로 결성됐으며, 2027년까지 총 1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펀드는 올해부터 중견기업의 신사업 수요가 큰 미래차·바이오헬스 등 핵심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중견기업의 개방형 혁신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펀드 결성식에서 공동 운용사로 선정된 KB증권과 대상창업투자는 앞으로 8년간(2023~2031년) 기업당 평균 50억원~100억원 규모로 투자할 계획을 밝혔다. 투자는 캐피탈 방식으로 총 투자금의 70% 이상을 중견기업에 투자한다.

결성식 이후 열린 설명회에서는 중견

기업 재무·회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우리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대표적인 6개 민관 금융기관과 금융 전문가가 국내외 금융 시장 동향과 중견기업 자금조달 방안에 대해 강연하는 한편, 우리은행 ‘라이징 리더스 300’ 등 각 기관별 중견기업 대상 금융 지원 프로그램 안내와 상담이 진행됐다.

제경희 중견기업정책관은 “중견기업의 역량 제고 및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성장을 적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계, 금융·투자 관계기관과 지속 협력할 것”이라며 “2027년까지 예정된 총 1조원 규모의 중견기업 전문 투자펀드를 차질 없이 조성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동반위, 협력사 ESG 지원... 1억 기금 출연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교육 등 종합 지원

동반성장위원회가 한국지역난방공사와 ‘2023년도 협력사 ESG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13일 동반위에 따르면 올해 처음으로 ‘협력사 ESG 지원사업’에 참여한 지역난방공사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경쟁력있는 친환경 신기술을 개발하는 등 미래에너지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국내 최초로 열 에너지 저탄소 인증 취득 및 공기업 유일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성 평가제도인 CDP(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에서 기후 변화 대응 아너스상 수상 등을 통해 탄소 감축의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김승호 기자

이번 ESG 협약을 통해 지역난방공사는 총 1억원의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했다. 공사는 동반위의 중소기업 ESG 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협력 중소기업의 맞춤형 ESG 지표를 선정 후 ESG 교육·진단·현장실사(컨설팅)·지속가능 경영보고서 발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컨설팅 후 ESG 지표 준수율이 우수한 중소기업에는 동반위 명의의 ‘ESG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한다.

확인서를 보유한 협력 중소기업은 ▲금리우대(신한·기업·경남·국민은행) ▲해외진출 지원사업 우대(코트라, 코이카) ▲환경·에너지 컨설팅 및 기술지원(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한진, 中 물류사업 네트워크 경쟁력 강화

AWOT와 조인트 벤처 설립

한진이 중국의 ‘에이닷글로벌코퍼레이션(AWOT)과 손잡고 물류사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한진은 중국 상하이 AWOT 대회의실에서 AWOT와 ‘상호 물류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협약은 양사가 공동사업체(Joint Venture) 설립을 통해 포괄적 협력 관계 구축에 뜻을 모으고, 현재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 유통 플랫폼에 대해 각자가 가진 물류 서비스와 네트워크 등의 역량을 공유하기로 하는

것이 골자다.

중국 광저우에 본사를 두고 있는 AWOT는 매출 5조원, 전세계 50개 글로벌지사 보유 중국 및 아시아 지역 전문 물류 기업이다.

현재 글로벌 물류 시장 규모가 지속 성장세에 있는 가운데 특히 중국계 플랫폼 기업의 성장세가 뚜렷하고 물동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진은 협약을 통해 자체 보유한 해외 네트워크와 포워딩 및 이커머스 등 물류 운영 역량을 제공하고, AWOT는 중국의 항공과 해상 및 내수 물류의 경쟁력 있는 자원과 운임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왼쪽부터)한진 조현민 사장, AWOT 로저 히 대표, 한진 노삼석 사장, AWOT 스투어트 오 부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진

이를 통해 한진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공동영업을 통해 새로운 고객사를 확보하는 등 신규 사업 기회 창출도 기대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휴롬, 소비자중심경영 확산 나선다

10개사 참석... CCM 협력 간담회 열여

휴롬이 소비자중심경영(Consumer Centered Management) 확산을 위해 나섰다.

휴롬은 샘표와 함께 ‘CCM 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채소과일 섭취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휴롬과 누구나 쉽고 맛있게 건강하게 요리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샘표가 협업해 ‘건강’이라는 공통분모 아래 CCM 활성화 및 실천을 위해 CCM 인증기업 중 처음으로 정보 공유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승호 기자

휴롬은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첫 CCM 인증을 받은 이후 지난해까지 4회 연속 CCM 인증을 받은 바 있다. 간담회 자리에는 휴롬, 샘표 관계자 뿐만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CJ제일제당, 남양, 목우촌, 샘표, 세라젠, 오투기, 위니아, 쿠첼,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등 10개사 CCM 담당자 총 24명이 참석했다.

휴롬 김정민 본부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CCM 인증 기업 간 긴밀하게 정보를 교류하고 논의하며 CCM의 가치를 되새기고 각 기업 내에서 활발히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